

毘盧寺 石造田比盧

阿彌陀二佛像의 考察

文 明 大

一、머리말

慶北 豊基의 毘盧寺①는 羅末麗初의 名僧이던 眞空大師가 重創한 이름있는 사찰이다. 이 절에는 眞空大師塔碑와 幢竿支柱 등이 있지만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石造佛像二軀에 대해서이다.

이 불상들은 현재 佛堂 안에 있지만 光背는 깨어진 채 요사채 우물가에 있으며, 台座는 교란된 채 佛堂 뜰에 놓여있어서 하루 빨리 復原해야 할 것이다. 먼저 이들 불상의 현 상태와 그 형식을 제2장에서 살펴보고, 깨어진 部材들을 모두 모아 佛像·光背·台座를 복원하는 작업은 제3장에서 시도해 보았다. 그런데 이들 불상의 양식은 桐華寺 石造毘盧舍那像이나 慶北大 毘盧舍那佛 특히 바로 이웃한 聖穴寺, 浮石寺, 靑龍寺 毘盧舍那佛像의 樣式과 비교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다. 이러한 양식적 특징을 밝히고 이와 아울러 眞空大師碑文의 고찰을 통해서 이들 불상의 년대를 밝히는 것은 제4장에서 시도했다.

이 불상들은 智拳印을 한 毘盧舍那佛像과 彌陀定印을 한 阿彌陀佛像 등 둘인데 처음부터 存像並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法堂에 독립되게 봉안했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하야튼 毘盧·彌陀二佛을 동시에 만든 것은 佛國寺의 예도 있다시피 당시의 華嚴宗 및 禪宗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아닐까 싶다. 더구나 毘盧舍那佛像은 浮石寺

를 중심한 이 일대의 많은 造成例 등과 더불어 浮石寺系統과 그 영향을 받은 禪宗의 威勢를 알려주는 적절한 예로 보아 좋을 것이다. 이 점을 제5장에서 살펴 보았다.

어쨌든 이들 두 불상은 新羅下代彫刻史에 빼 놓을 수 없는 매우 귀중한 자료로서 높이 평가 받아 마땅하리라 믿는다. 이 글은 新羅下代彫刻史研究의 한 부분으로 씌어진 것이므로 너무 간략하게 취급하여 미비한 점이 많을 것이다.

二、佛像의 形式

가, 毘盧舍那佛像의 形式

이 불상이 언제부터 이 자리에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수십년 간 이 절에 살았다는 공양주보살의 말에 의하면 아마도 불상과 함께 원래 이 자리에 있다가 옆에 새 法堂을 꾸며 그리로 옮겼었는데, 몇 년 전에 이 佛堂을 짓고 다시 모셨다고 한다.

불상 자체는 파손이 거의 없지만 머리부분에는 약간의 後補가 있는 것 같다. 머리의 꼭지에는 頂上寶珠(髻珠)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 보충한 것이며 중간의 髻珠 역시 後補된 것 같다. 머리와 肉髻가 잘 구별되지 않음 정도로 肉髻의 표현은 불분명하며, 머리카락은 螺髮로 약간의 손상을 입은 것 같다.

얼굴은 둥근 편인데 근래에 와서 胡粉을 지나치게 발라서 얼굴의 개성있는 표정을 잘 알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 얼굴은 九세기 후기의 石佛들과 마찬가지로 단아한 얼굴로 보아 좋지 않음까 싶다. 白毫는 눈썹 사이에까지 바싹 내려온 편인데 직경 1cm로서 비교적 작은 것이다. 현재 水晶이 박혀있는데 아마도 요즘의 것인 듯하다. 두 눈은 안은한 것으로 九세기 후기의 것과 닮고 있다. 코 역시 당시의 코형식을 보여

주고 있는데 코 밑의 인중까지도 약간 두드러지게 표현하여 입까지 연 결시키고 있어서 말하자면 九세기 후기 불상의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귀는 얼굴에 비해서 비교적 긴 편인데 桐華寺像과 유사한 것 같다. 턱에는 군살이 표현되었으며, 목에는 三道가 있다.

신체는 인간적인 형태로 어깨나 가슴 등을 단정하게 처리하였고, 두 손은 가슴 앞에 아래 위로 포개어 전형적인 智拳印을 짓고 있다. 다리는 인다리 위에 오른다리를 포개 結跏趺坐의 자세로 앉아 있는데 두 발은 모두 노출시켰다.

옷은 通肩衣를 입고 있는데, 가슴은 넓게 노출되었고 왼손에 걸쳐 매듭이 보인다. 옷주름은 팔이나 다리 등은 얇게 빚은 듯한 平行階段式 옷주름 무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법은 桐華寺나 聖穴寺 등과 비슷한 것이다.

나, 阿彌陀佛像의 形式

이 阿彌陀像 역시 毘盧舍那佛像과 거의 같은 형태와 비슷한 양식을 보여주는 불상이다.

머리의 頂上肉髻라든지 髻珠 또는 螺髮들은 모두 毘盧佛像과 흡사한 편이다. 얼굴은 비로상 보다 약간 가름한 편이지만 기본형은 역시 당시의 桐華寺나 聖穴寺像과 같은 것이며, 여기에 표현된 눈·키·코·입 등은 모두 비로자나불상과 거의 동일한 것인데 코나 입 등이 비로상 보다 약간 작은 것이 다를 뿐이다.

어깨는 전장하며 가슴은 두드러지게 표현했는데 비로상과는 달리 右肩偏袒의 옷 때문에 오른쪽 젖가슴을 드러내었으며, 젖꼭지도 표현되고 있다. 이것은 右肩偏袒 함께 佛國寺 金銅佛像과 유사한 형태로 생각된다. ② 두 손은 다리 위에 올려서 彌陀定印을 짓고 있는데 엄지와 두께 손가락을 맞대어 마주보게 하고, 다른 손가락들은 오른손가락과 왼손가락들을 서로 사이사이에 끼우고 있다. 앞음새는 結跏趺坐로 오른다리가 왼다리 위에 있는 그런 형식이다. 옷은 右肩偏袒의 大衣를 입고



圖 2. 毘盧舍那佛像



圖 1. 阿彌陀佛像

있는데, 외쪽 어깨에서 오른쪽 어깨로 점점 넓게에서 뒤집혀지고 있다. 다리의 옷주름은 비로상과 같이 무릎 안쪽에서 내려오는 선과 발목에서 내려오는 선이 무릎 바깥쪽에서 끊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또한 서로 엇갈리게 표현하여 방어진산마애불 같은 立佛③에서 처럼 그런 형식을 보여 주고 있다.

팔이나 기타 옷주름은 역시 층단을 짓고 있으며 일부는 凸형으로 鸞棲寺像의 옷주름까지는 진행되지 못한 것 같다④.

다, 光背形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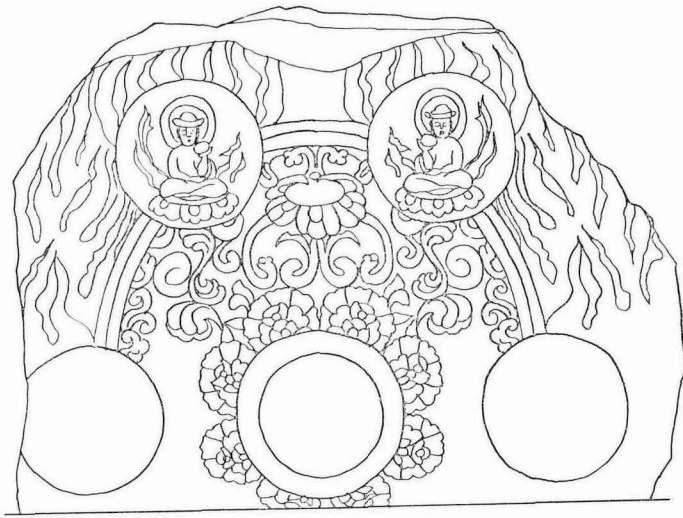


圖 3. 光背(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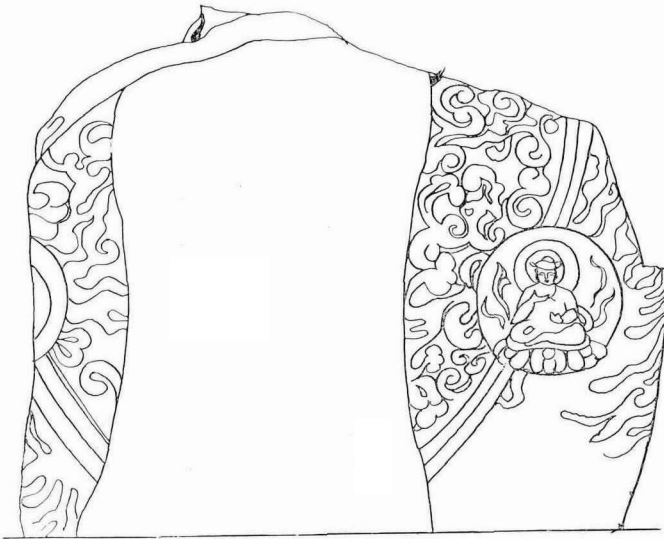


圖 4. 光背(2)

요사채 옆 水道가에 깨어진 光背가 두片 보인다. 이片들은 원래 法堂 오른쪽 골짜기에 굴러 있었던 것을 몇년 전에 이 곳으로 옮겨 놓았다고 한다. 이 광배를 옮겨 놓은 주지스님의 말에 의하면 그 가까운 곳에 또 하나의 편이 있다고 하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1) 第1光背

이것은 光背의 上部로서 頭光背까지 있고 그 밑은 절단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깥 테두리(外緣部)는 대부분 깨어져나가고 파손이 꽤 있는 편이다.

가장 윗부분인 머리광배 위의 꼭지부분은 절단되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頂上三尊佛이 없어진 것 같다. 그 대신 머리광배 부분은 잘 남아 있는 셈인데 두 가닥(二條線)의 테두리선에 각기 化佛 2軀씩이 아래위로 배치되어 있다. 이 化佛들은 蓮花台座 위에 結跏趺坐한 것으로 桐華寺光背 化佛과 거의 흡사한 것이다. 이 테두리 안에는 寶相唐草 무늬가 매우 화려하게 표현되었는데 윗 부분에는 역시 桐華寺 비로자나불 光背처럼 커다란 꽃송이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중심부는 두 가닥의 둥근선이 있고, 이 바깥에 화려한 꽃무늬가 있는 8잎의 연꽃무늬가 표현되고 있다. 이 두 광배 바깥은 불꽃무늬들이 번잡스러울 만큼 화려하게 표현되었는데

이것은 머리광배의 化佛, 寶相唐草무늬, 중심연꽃무늬 등과 함께 桐華寺의 머리광배와 꼭 같은 형식임이 분명하다.

(二) 第二光背

이것은 光背의 下部로서 윗 부분이 절단되었고 오른쪽(向左)도 깨어져 파손이 심한 편이다. 안쪽에는 佛身の 형태 비슷하게 무늬를 새기지 않았으며, 이 밖으로 두 가닥의 둥근 테두리가 있다. 이 테두리에는 현재 외쪽에 化佛一구가 있고, 이와 대칭하여 오른쪽에 있지만 깨어져 약간만 보일 뿐이다. 테두리 안쪽에는 寶相唐草무늬가 있고, 바깥볼꽃 무늬가 있는데 이것은 第一광배와 꼭 같은 것이다.

라, 台座形式

臺座들은 제각기 흩어져 있어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두 불상의 臺座部材들은 대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法堂의 向 오른쪽에 下臺와 中臺로 보이는 대좌가 남아 있고 法堂 바로 앞에 佛像臺座로 보이는 部材와 다른 石燈部材 같은 것을 얹어 塔形을 이루게 한 것이 있으며, 또한 上臺로 보이는 部材가 법당 前面 주춧돌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리고 下臺의 覆蓮花石들이 현재 각각 佛像臺座로 쓰이고 있다.

(一) 法堂 向 오른쪽 臺座部材

밑에는 四각형의 地臺石이 있는데 두 장의 板石으로 이루어졌고, 通例와 같이 아무런 무늬도 없다. 그 위에 8각형의 下臺面石이 있는데 여기에는 각 면마다 眼象무늬가 새겨져 있다. 이 위에는 中臺石이 놓여 있는데 圓筒形처럼, 보이는 8각형 中臺石이다. 여기에는 구름무늬와 구름무늬들 안에 각 면마다 한마리의 獅子를 배치하고 있다. 이 사자는 용같이도 보이지만 사자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단 뒷면의 한 면만 사자가 없고, 구름무늬만 있다. 이러한 中臺石의 형식은 桐華寺의 것과 꼭 같은 것이며, 또한 경북 성주군 가천면 石造毘盧舍那佛像(새로 조사된 것으로 곧 소개할 것임)과도 비슷한 형식인 것이다.

(二) 上臺仰蓮石

이것은 현재 법당 주춧돌로 사용하고 있는데 九세기 중엽의 다른 예들로 보아 上臺座가 틀림없을 것이다. 현재 반쯤이 묻혀 있어서 확실하게 알 수 없으나 일부를 파 본 결과 이들의 현상은 완전하게 알 수 있었다. 연꽃무늬는 重瓣으로 안에는 복잡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고, 이 밑에는 三단의 받침이 있다. 이러한 형식의 上臺石은 桐華寺, 鸞樓寺, 浮石寺 등 九세기 후기의 모든 臺座에 다 보이는 것이다.

(三) 法堂 앞 臺座

塔形으로 쌓아 놓은 이들 部材 가운데 佛像臺座 비슷한 것은 眼象무늬가 있는 下臺石과 불상들이 새겨진 八각형 中臺石이다. 크기로 보아서 이들 石佛이 꼭 맞지 않는 것 같아서, 佛像臺座로 단정할 수는 없다. 中臺石은 八면의 각 면마다 불상이 앉아 있는데 손 모양은 각각이다. 안상이 있는 臺座 下臺石은 법당 옆 (一)의 안상석과 비슷하지만 안상무늬가 좀 심약한 것이 다르다.

(四) 覆蓮石

두 불상의 대좌로 현재 새로운 돌을 다듬어 笏石을 만들고 그 위에 覆蓮石을 올려 놓았는데, 아마도 불상 밑의 覆蓮石은 귀꽃이 달린 매우 힘있는 것이고 받침이 三段으로 되었다. 비로자나 불상 밑의 覆蓮石은 귀꽃은 없지만 復瓣의 연꽃무늬로서 동화사의 것과 비슷한 것이다.

三、復原的 考察

앞에서 살펴 본 불상·광배·대좌들은 모두 서로 떨어져 있어서, 하나의 불상으로 완전하게 복원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대좌·一구·광배·一구씩은 復元이 가능하므로 두 완전한 불상 가운데 한 불상과 짝지우면 불상·광배·대좌를 완전히 구비한 九세기 불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는 두 불상 가운데 毘盧舍那佛像으로 하나의 완전한 불상을 복원해 보겠다.

圖(5)에서 보다시피 우선 대좌부터 재구성해 보자. 下臺石은 법당

向 오른쪽에 있는 下臺石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地臺石 위에 안상무니 있는 八각석은 九세기 후기 石佛이면 으레껏 통용되는 것이다. 이 위에 覆蓮石은 현 毘盧佛像 밑의 것을 사용하였다. 여기의 연꽃무니라든가 中臺받침의 四分圓으로 들어간 특징적인 처리 등은 동화사나 축서사 등 九세기 후기 불상에 반드시 표현되는 것이다. 이 위의 中臺石은 역시 법당 옆의 구름무니 속에 사자가 있는 특징적인 中臺를 이용해 보았다. 이것은 동화사의 것과 꼭 같은 것으로 한 사람의 손짜 처럼 보일만큼 닮았기 때문에 동화사 처럼 毘盧佛像臺座로 적합할 것 같기 때문이다. 上臺는 현재 주춧돌로 사용하고 있는 복잡한 꽃무니가 새겨진 重瓣蓮花紋으로 구성해 보았다. 이러한 上臺는 역시 九세기 후기 石佛의 上臺로 항상 쓰여지고 있는데, 가령 동화사, 축서사, 부석사 등등 모두 이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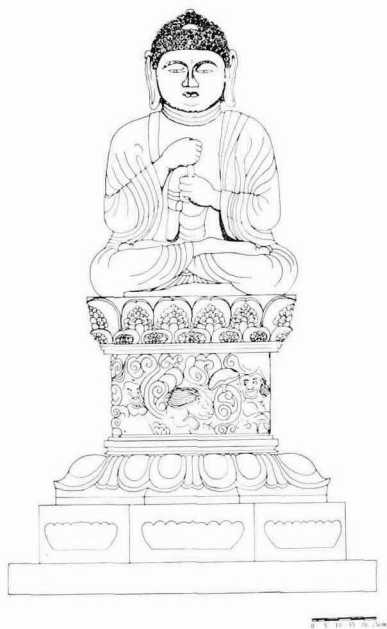


圖 5. 復原圖

이들 대좌위에 毘盧佛像을 얹으면 그림(圖 5)과 같이 꼭 알맞게 된다. 여기에 광배까지 복원해 보자. 현재 광배편이 두 개 있는데 이것을 연결시켜 보면 그림(圖 6)과 같이 될 것이다. 말하자면 앞 光背(圖 2)의 윗부분을 복원하면 化佛과 구씩 더 붙게 될 것이며, 여기에 당초무니나 불꽃무니만 더 넣으면 바로 대체적인 윤곽은 잡힐 것이다. 이렇게 광배 역시 동화사 광배와 꼭 같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불상·대좌·광배 등 하나의 완전한 불상으로 복원될 수 있는데, 이것은 桐華寺 毘盧舍那佛像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臺座復原 全高·一·一五 cm
光背復原 全高·一·一八〇 cm

四、樣式的特徵과 年代問題

여기의 두 불상은 대체적으로 九세기 후기의 石佛들과 비슷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毘盧舍那佛像은 桐華寺 毘盧舍那佛像과 거의 비슷한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우 주목된다. 먼저 주목되는 것은 둥근 얼굴, 굽은 목, 큰 코와 입, 짧은 귀, 그리고 표정이 없는 단정한 얼굴과 둥글면서도 아직도 힘있는 어깨, 안정되고 조용한 신체 등의 형태는 현실적 사실주의 양식으로 동화사상과 매우 비슷한 것이다. ⑤ 그런데 아미타불상의 형태에서 佛國寺 金銅佛像과 친연성을 갖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이것은 右肩偏袒의 着衣法 때문도 있겠지만 하여튼 약간 당당한 어깨, 양감있는 젓가슴 등은 佛國寺 金銅佛像系統으로 보아 좋을 성싶다. 그러나 모든 점에서 비로자나불상과 같이 현실적 사실주의 양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점은 비례면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의 비로불상은 전신 ..머리높이가 ..〇, 三·五이며 전신 ..얼굴높이는 ..〇, 一·八인데 이

것은 동화사와 꼭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동화사 보다는 끝자리수에 있어서 약간 더 진전된 것밖에 없는 것은 특히 주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형태는 불상 뿐만 아니라 臺座와 光背에 있어서도 꼭 같이 지적할 수 있는 것으로 동화사의 대좌와 광배와 이 불상의 대좌와 광배는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좋을 만치 닮아 있는 것이다. 아마도 같은 彫刻匠의 작품이거나 아니면 同一流派의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의 특징은 線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의 선은 힘차고 발달한 그런 선이 아니라 안정되고 딱딱할 정도로 단아한 그런 선으로 이것은 얼굴의 세부나 신체 각부의 윤곽선은 물론이고 옷주름선에 이르기 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역시 桐華寺像과 비슷한 것으로 우선 옷주름선의 세부 특징만 살펴봐도 외쪽 가슴에서 내려오는 것은 세가타으로 어깨에서 내려 올수록 점점 좁아지며, 왼쪽 어깨에서 내려오는 선은 한 가닥의 넓은 옷깃으로 동화사와 이 상이 꼭 같은 것이고, 가슴의 승각기 띠매듭과 여기서 내려가는 U形주름, 그리고 옷깃입 역시 같은 수법이며, 팔 윗부분의 주름선이나 팔목의 계단식 주름 등도 역시 동일한 것이다. 다만 桐華寺像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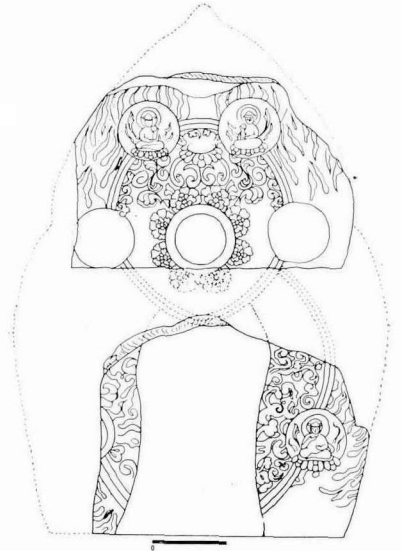


圖 6. 光背復原圖

法衣가 두 다리를 덮은 대신 이 像은 그렇지 않아서 다리의 옷주름이 약간 다른 것 뿐이다. 그러나 다리나 팔꿈치의 옷주름선은 완전히 이어지지 않고 중간이 끊어지고 있는데 이들 선은 서로 어긋나고 있는 점이 또한 유사한 것이다⑥. 그런데 광배나 대좌의 꽃무늬나 세부 윤곽선들은 화려하고 심약하기 까지 한 것으로 역시 동화사상의 특징과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모든 점에서 동화사상과 비슷하면서도 약간 더 진전된 양식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 불상은 동화사상과 비슷한 년대이거나 약간 더 내려오는 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동화사상의 제작년대인 八六三年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보면 어떨까 싶다 이것은 바로 이웃한 聖穴寺 毘盧佛像⑦과도 유사한 것으로 아마도 동화사, 성혈사, 그리고 이 불상들이 다 같이 동일한 流派로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이 불상이 眞空大師의 小白山寺의 重創과 관련된다고 보면 이 불상의 실질적인 제작 下限이 언제인지는 명확히는 알 수 없게 되지만 적어도 九〇〇년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五、佛像造成의 性格

위에서 논의한 毘盧·阿彌陀佛像의 성격을 밝히자면 우선 毘盧寺의 성격부터 알아보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한다. 毘盧寺는 원래 小白山寺로 알려진 것 같다. 이 절의 重創主인 眞空大師는 伽倻山에서 이 小白山寺로 초빙되어 왔다는 기록이 故眞空大師碑文에 있기 때문이다. 眞空大師는 新羅 文聖王 때인 八五五년에 태어나서 신라가 망한 二년 후인 高麗 太祖 二〇年, 즉 九三七年에 八二세의 나이로 돌아간 스님이다. 그의 아버지는 執事侍郎을 지낸 確宗이란 분으로 말하자면 六頭品 출신의 승려인 셈이다. 다 알다시피 六두품은 신라 말에서 고려로 사회가 변하던 당시에 커다란 구실을 담당하던 계층이었으므로 그의 활약도 이런 일련의 관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여튼 그는 처음에

는 伽佛山의 善融이란 스님의 제자가 되었다 한다. 伽佛山의 절이 어느 절인지 확실치 않을 수 없지만 흔히 부르는 대로였다면 海印寺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는 華嚴宗系統의 스님이 분명하다. 그런데 그는 정식으로 比丘戒를 받은지 얼마 후에 스스로 禪宗으로 적을 옮기고 있다. 즉 陳田寺 道義스님의 塔을 찾아가서 弟子가 되기를 스스로 맹세하였는데 그 후 부터 그는 道義의 門派로 행세한 것 같다. 따라서 그는 스스로 迦智山派의 一支派가 되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⑧. 말하자면 그는 華嚴宗出身 禪宗스님이니 이러한 패턴은 당시 禪宗스님이 되는 하나의 지배적인 경향이었던 것이다⑨. 이 가운데서도 그는 누구에게 직접 법을 받지 않고 스스로 돌아간 분에게 사사한 특이한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그의 이러한 성격이 이 사찰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고 또한 佛像造成에도 그대로 나타난 것 같다.

당시의 禪宗은 그들의 主佛을 대부분 毘盧舍那佛로 모셨다. 특히 迦智山派는 寶林寺의 예에서 처럼 毘盧舍那佛을 모시는 것이 원칙이었던 것 같다. 이것은 이미 글쓴이가 밝혔다시피 그들 선종스님이 화엄종출신으로 敎理的으로는 華嚴學에 경도되어 있었고 신앙적으로도 화엄적 신앙에 연계되었기 때문인 것이다⑩.

그런데 여기서 阿彌陀佛像도 동시에 조성하고 있다. 그러나 毘盧彌陀 并存像이 造成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并存像은 九세기 新羅華嚴佛敎의 한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고 밝힌 적이 있다⑪. 즉 八세기의 화엄종 主佛인 阿彌陀佛과 九세기의 화엄종 主佛인 비로자나불이 동시에 신앙된 것으로 이러한 예는 佛國寺 金銅毘盧·彌陀 并存像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⑫. 어쨌든 이들 두 불상이 조성되어 신앙된 것은 당시 화엄종의 신앙사상에서 유래된 것이 틀림 없고, 이러한 것이 그대로 禪宗에서도 채택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서 특히 주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아울러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이때 髻珠가 표현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는 점이다. 故眞空大師碑文에는 불상의 머리에 髻珠를 장식했다는 것과는 다른 뜻으로 쓰이긴 했지만 髻珠라는 표현을 분명히 쓰고 있기 때문이다⑬.

六、맺는말

이상에서 경북 풍기읍 毘盧寺에 봉안되어 있는 돌로 만든 毘盧·彌陀 두 불상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 보았다. 먼저 흠어져 있는 불상의 部材 등을 모아 원래대로 復原해 보았다. 여기서 毘盧舍那佛은 台座、光背 등을 모두 복원하여 완전한 불상을 만들 수 있었다. 둘째로 불상의 형식과 양식적 특징을 통해서 동화사 비로자나불계통과 연결되는 현실적 사실주의 불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조성년대는 九세기 후기 八六三년 작의 동화사불상계통을 따르는 것으로 아마도 八六〇년대 아니면 그때 부터 九〇〇년 사이의 어느 때 조성으로 우선 넓게 잡아 두었다. 셋째로 이들 비로·미타 두 불상은 九세기 화엄종의 특색있는 신앙대상인데, 이것이 華嚴에 기초를 둔 선종계통에서 채택한 것으로 특색있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밝혀 보았다. 그러나 불상 세부의 형식이나 양식의 체계적인 파악 또는 두 불상조성의 신라 및 고려의 복잡한 사회적인 배경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 물론 제한된 지면관계 때문이지만 어쨌든 미비점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新羅下代佛敎彫刻史研究」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고 간략하게 요약해 두는 바이다.

[註]

1. 榮州郡 豊基邑 三洞의 小白山 毘盧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데, 계단식으로 된 전형적인 山間寺刹로서 현재는 새로 지은 법당과 요사채 밖에 없는 빈약한 절로 변했다. 그러나 幢竿支柱와 眞空大師塔碑、石造如來坐像 二 軀 등 羅末麗初의 중요한 유물들이 남아 있어서 신라의 불교미술연구에

- 주목해야 할 사찰인 것 같다. 碑文에 대해서는 葛城末治의 다음과 같은 간략한 소개문이 있다. 「毘盧寺眞空大師普法塔塔碑」(朝鮮金石攷) P、295
- 2、文明大「佛國寺 金銅如來坐像二軀와 그 造像讀文의 研究」美術資料 一九號、一九七六、P·P 一一一六。
 - 3、文明大「新羅下代佛敎彫刻의 研究(一)―防禦山 및 實相寺 藥師如來巨像을 中으로―」歷史學報 七三輯、一九七七、P·P 一一三四。
 - 4、文明大「新羅下代 毘盧舍那佛像研究」美術資料 二二號 一九七七。
 - 5、文明大「新羅下代 毘盧舍那佛像의 研究」美術資料 二二號 一九七七。
 - 6、이 집은 防禦山磨崖佛에서 부터 나타나고 있는 특징이다(文明大「新羅下代 佛敎彫刻의 研究(二)」歷史學報 七三輯 참조)。
 - 7、文明大「聖穴寺 毘盧舍那如來坐像의 한 고찰」考古美術 一三二號 一九七六
 - 8、金映遂선생은 善融은 道義의 法孫으로 보고 그의 제자인 眞空을 迦智山派의 門徒로 인정하였지만 그렇게 볼 수 없을 것 같다。(金映遂「曹溪禪宗에 就하여」P、一六九 참조)
 - 9、崔炳憲「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韓國史研究 七、一九七二、P·P 七九―一四、文明大「新羅下代 毘盧舍那佛像研究」美術資料 二二號 一九七七、
 - 10、文明大「註9 논문」참조。
 - 11、文明大「佛國寺 金銅如來坐像二軀와 그 造像讀文의 研究」美術資料 一九號 一九七六、(P、東國大學校助教授) 二二。
 - 12、文明大「앞註」참조。
 - 13、眞空大師碑文에는 「俱獲髻珠共傳心印」즉 「모든 제자에게 髻珠를 갖게 해서 함께 心印을 전했다」는 것으로 髻珠를 갖는다는 것은 곧 깨달음을 얻은 상징으로 보았던 것이다。(朝鮮金石總覽上 故眞空大師碑條)

(東國大學校助教授)